

최태원 회장, SK하이닉스 위해 <떡 봉사>

SK그룹이 5월14일 SK하이닉스 본사가 소재한 경기 이천에서 <사랑의 떡> 나눔 행사를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첫 인사를 했다.

최태원 회장, SK텔레콤 하성민 사장, SK하이닉스 권오철 사장, 12개 관계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.



최태원 회장과 임직원들은 떡 만들기 전통 테마마을인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 마을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한 뒤 곧바로 떡 만들기에 들어갔다.

떡메를 잡은 최태원 회장은 구슬땀을 흘리며 직원, 주민들과 함께 부지런히 떡을 만들었고 떡을 개별 묶음으로 포장했다.

노인복지시설인 이천한나원(대월면 초지리)을 찾은 최태원 회장은 노인들에게 떡과 식혜를 나눠준 후 담소를 가졌다.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도 조를 나눠 이천지역 22개 사회복지시설과 아동센터 등에 떡을 배달했다.

SK그룹 홍보실 이만우 전무는 “이천지역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곳이지만 그룹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첫 인사를 한 셈”이라며 “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청주 등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14>